태고종 전북종무원, 태고진묵장학회 설립

청소년 21명에 장학금 1천만원



태고종 불자들과 지역 우수 불자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가 설립됐다.

태고진묵장학회(이사장 진성, 태고종 전북종무원장)는 4월 1일 태고종 전북종무원 영산작법보존회 전수관에서 제1회 태고진묵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학부모 ·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익산 팔봉초 주동성 학생 등 21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날 전달된 태고진묵장학금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의 공약사항이다.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교생 · 대학생 50만원으로 태고종 각 사암의 추천과 지역 사회단체에서 추천된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진묵대사의 큰 뜻을 살려 대한민국 국민이자 태고종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와 봉사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은 태고진묵장학회와 태고종보 발행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태고진묵장학회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진묵대사의 유지를 이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청소년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으로 올해 안에 법인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애불 보존, 더 이상 문제없길"

낙단보 마애사, 마애불 관리동 준공법회 열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말사인 마애사가 4월 1일 마애불 관리동 준공식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의성사암연합회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김주수 의성군수, 김화숙 제16교구신도회장, 김동진 불교포럼 상임대표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대회사에서 "낙단보 마애불 관리동 준공이 있기까지 성원해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부처님 인연공덕으로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세계가 협력으로 하나돼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앞으로 불교문화를 꽃피워 모든 고난, 재난, 병고에서 벗어나 불국정토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법어했다.

또한 준공법회에 이어 마애사 현판식 및 기념식수, 생명살림 방생기도로 생명존중 가치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애사 마애불 관리동은 지난 2010년 3월 경북 의성에서 4대강 낙단보 구간 공사 중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된 마애불(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2호)을 관리보존하기 위해 33평의 부지에 정면 7칸, 측면 2칸의 'ㄱ' 자 민도리 한옥양식으로 건축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 문 열어

대한불교법연종이 부산본원 '연정사' 불사를 마무리하고, 남북평화통일과 한국불교 중흥기도대법회를 열어 새 출발을 알렸다.

법연종(회주 조연)은 4월 1일 부산 온천동에 새롭게 자리 잡은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에는 법연종 회주 조연 스님과 창원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5000명이 동참했다.

조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되 시대와 발맞춘 앞서가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포교 원력을 밝히고 "남북전쟁이란 아픈 과거를 이겨내고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는 2015년 10월 부지를 매입해 2016년 4월 착공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대지면적 4,582㎡(1386평), 연면적1만419㎡(3157평)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1층은 판매시설,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역민과 불자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3~5층은 법당 및 문화집필시설이며 공사비용은 총 260억이 사용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 경남, 지혜와 자비 燈 밝힌다"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준비 돌입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기2562(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과 울산, 창원지역 불자들이 부처님 자비와 지혜를 알리고자 연등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봉축행사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부산연등축제는 5월 1~13일, 총 13일간 펼쳐진다. 행사의 막을 올리는 개막점등식은 5월 1일 오후 7시 송상현 광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지난해는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됐지만 올해 화려한 연등을 보고 싶다면 송상현 광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통등 및 거리등, 등터널과 각종 전시등이 어둠을 화려하게 밝힌다. 장엄등은 총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통문화체험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 전통문화체험은 무료이며 전통문화공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무차만발공양, 제34회 연꽃문화제 등이 마련된다.

봉축대법회 및 연등행렬이 진행되는 부산연등회는 5월 12일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된다. 연등회는 오후 2시 집결해 전체 리허설 진행 후, 본격적인 행사 시작은 오후 4시다. 예불과 봉축연합대회 그리고 어울림한마당 이후 오후 8시부터 연등회 백미인 연등행진 시작된다. 이 자리서 부산연등회에 참여한 2만여 명의 부산불자들은 봉축법요식에서 국태민안과 국가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특히 남북 · 북미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발원한다.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을 출발해 부전시장, 서면로터리, 새싹로를 거쳐 부산시민공원으로 되돌아온다. 구간은 약 4.3㎞다.

부산 송상현 광장서 연등 밝혀

울산 태화강연등축제 행사 다채

창원 진해중원로터리 장소 변경

"부처님 자비정신 널리 알리길"

(사)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남현)는 3월 30일 옥돔문화뷔페에서 2018년 태화강연등축제 봉행위원회를 결성했다. 태화강연등축제는 오는 5월 12~13일 태화강 둔치 일원(구, 태화호텔 앞)에서 개최된다.

태화강연등축제점등식은 12일 오후 8시 야외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13일에는 부처님이운행렬재연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과 제등행렬이 화려하게 열린다. 매년 태화강연등축제봉행위원회는 부처님이운행렬을 재연하고 시민참여도 받고 있다. 시민참가접수는 태화강연등축제 홈페이지(www.ubcf.net)를 통해 하면 된다. 부처님이운행렬 재연은 오후 5시 태화루를 출발해 봉축법요식 행사장에서 마무리된다. 봉축법요식은 오후 6시에 진행되며, 제등행렬이 뒤이어 화려하게 도심을 밝힌다. 제등행렬 동선은 약 2.2㎞이며 행사장을 출발해 신정시장, 울산시청, 롯데사거리에서 해산한다.

그 외 연등터널 및 50여개의 화려한 연등이 전시되며 발우공양, 만등연등불사가 준비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은 △지역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시민축하공연 △불교합창콘서트 및 이웃종교합창제 △행복바라미 문화행사 △시민체험 프로그램(연등미술제 · 캘리그라피 · 종이꽃액자 · 연등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는 4월 3일 창원호텔 만다린에서 봉축임원회의를 열어 창원시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8일 창원시 연등축제를 진해 중원로터리와 중원쉼터에서 진행키로 결의했다. 연등축제 식전행사로는 봉축문화한마당이 오후 5시에 시작하며, 연합봉축법요식은 오후 7시 봉행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창원시 연등축제 봉축탑 등은 4월 30일~5월 22일 창원광장(시민탑돌이)에서 만날 수 있으며, 시민안녕을 기원하는 연꽃등은 5월 4~22일 마산합포구청 광장에서 볼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은 5월 19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제등행렬은 창원광장을 출발해 상남시장, 삼일상가를 돌아 창원광장에서 회향한다.

"속환사바해 뜻을 다시 펼쳐주소서"

통도사, 야부당 초우 스님 3월 30일 영결 · 다비 엄수

일생(一生)은 도리어 봄날의 꿈과 같고, 꿈을 말하나 이 또한 몽중몽(夢中夢)이라. 임종(臨終)의 참 소식 나에게 묻는다면, 꿈 깨인 자유로운 걸음 처처(處處)에 걸림 없네. 야부 돌!


야부당 초우 스님 영결식에 참석한 대중이 영단에 조의를 표하는 모습.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초우 스님이 꿈을 깬 자유로운 걸음으로, 처처에 걸림이 없는 모습으로 임종게를 남기고 사바세계를 떠났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3월 30일 제19대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인 야부당 초우 스님의 영결식을 대웅전 앞마당에서, 다비식을 연화대에서 엄수했다. 영결식은 △영결법요 △행장소개 △법어 △추도사 △조사 △헌화 및 분향 △다비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설정 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초우 스님은 산문에 머물 때는 눈 푸른 안목과 대기대용을 갖춘 백납 운수였고, 밖에서는 이사(理事)를 겸비한 만행 보살이었다"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자운을 일으키고 진리의 법고를 울려 불일(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소서"라고 애도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초우 스님은 선과 교를 두루 겸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단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통도사 주지와 부방장, 총무원장 원로의원 등을 맡아 통도사와 총무원의 토대를 단단하게 했다"며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수행자의 본분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고, 대중포교에 큰 자취를 남기셨으니, 우리 종도들은 스님의 자취를 따라 부단히 수행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우 스님은 유년 시절부터 마을 인근에 위치한 해인사를 자주 들러 불법의 연을 짓기 시작했으며, 1947년 봄 15세에 해인사 동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초대 종정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5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교학에 남 다른 열정을 지닌 초우 스님은 이후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운허 스님에게 수학하고 월하 스님을 법은사로 사제의 인연을 맺었다. 이후 스님은 출가사문으로 선수행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1961년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첫 안거를 지냈다. 상원사에서 4안거 성만과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선원과 구미 도리사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당시 스님은 전국 선방에서 '말뚝수좌'라는 이름으로 회자됐다.

1981년 제19대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1984년 조계종 비상종단운영회 의장, 1988년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이사장과 스리랑카 마하보디회 한국 대구지회 이사장으로 한국 불교 국제화에 포문을 연 주역이다. 초우 스님은 3월 26일 오전 6시 5분 법랍 72세, 세수 86세를 일기로 영축총림 도량의 자장매 향기 그윽한 아침, 세연을 다하고 원적에 들었다.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